

보도	2025.01.14.(화) 석간	배포	2025.01.13.(월)		
담당부서	보험감독국 보험리스크감독팀	책임자	국 장	노영후	(02-3145-7460)
		담당자	팀 장	한태진	(02-3145-7466)

**‘24.9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\***

\* 회사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

## 1.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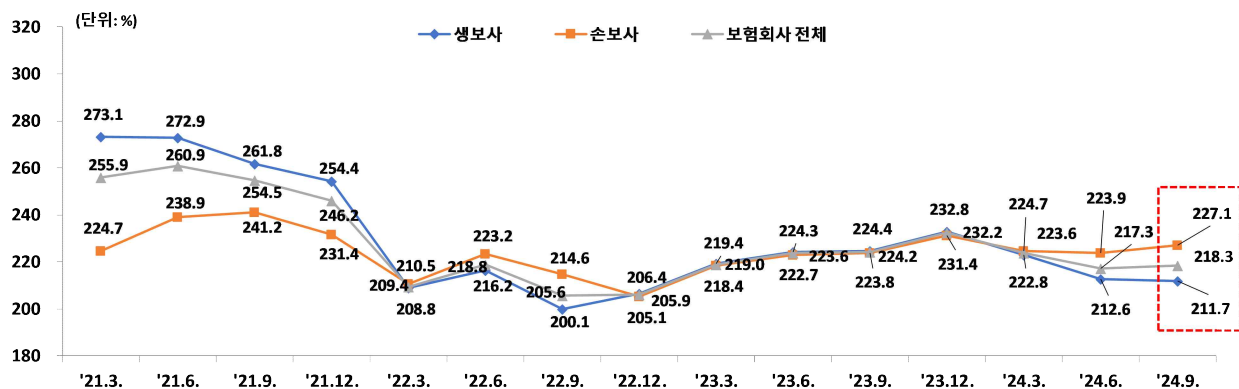
☐ (경과조치 後) '24.9월말 경과조치\*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  
여력비율(K-ICS)\*\*은 218.3%로 전분기(217.3%) 대비 1.0%p 상승

\* 19개 보험회사(생보 12개사, 손보·재보 7개사)가 경과조치 적용 중

**\*\* 지급여력비율 = 가용자본 ÷ 요구자본**

○ 생보사 211.7%(전분기 比 △0.9%p), 손보사 227.1%(전분기 比 +3.1%p)

## 지급여력비율 변동 추이



주) '23.3월말 이후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後 K-ICS비율

## <참 고>

## 경과조치 적용 前 K-ICS 비율

□ (경과조치 前) '24.9월말 경과조치 적용 前 K-ICS비율은 202.7%로  
전분기(201.5%) 대비 1.2%p 상승

○ 생보사 191.2%(전분기 比 △0.5%p), 손보사 218.7%(전분기 比 +3.1%p)

## 2. 지급여력비율 변동 주요원인

□ (가용자본 ↓) '24.9월말 경과조치 後 K-ICS 가용자본은 258.9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.5조원 감소

- '24.3분기 중 이익잉여금 5.7조원 증가 및 3.4조원 규모의 자본성증권(신종 및 후순위채권) 발행\* 등으로 가용자본이 일부 증가하였으나,

\* 총 8개사(생보 4개사, 손보 4개사)에서 자본성증권 약 3.4조원 발행

- 주가 하락\*과 시장금리 하락\*\*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△11.2조원 감소한 것에 기인

\* 삼성생명·화재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시장금리 하락과 삼성전자 주가 하락(6월말 81,500원 → 9월말 61,500원, △24.5% 하락)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△8.0조원 감소

\*\* 국고채10년물 금리: '24.6월말 3.27% → '24.9월말 2.99% (△27bp)

□ (요구자본 ↓) '24.9월말 경과조치 後 K-ICS 요구자본은 118.6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.2조원 감소

- 건강보험 판매 확대 등으로 장해·질병위험액(+1.9조원)이 증가하고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금리위험액(+0.7조원)이 증가하였으나,

- 주가 하락\* 등의 영향으로 익스포저가 감소하여 주식위험액(△3.9조원)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

\* 삼성생명·화재의 주식위험액은 삼성전자 주가 하락 등으로 전분기대비 △3.6조원 감소

### < 지급여력비율 변동 상세 >

(단위: 조원, %, %p)

구 분	경과조치 前			경과조치 後		
	'24.6월말 (A)	'24.9월말 (B)	증감 (B-A)	'24.6월말 (C)	'24.9월말 (D)	증감 (D-C)
가용자본(조원)	257.5	256.0	△1.5	260.4	258.9	△1.5
요구자본(조원)	127.8	126.3	△1.5	119.8	118.6	△1.2
지급여력비율(% , %p)	201.5	202.7	+1.2	217.3	218.3	+1.0

## 3. 향후 감독방향

□ '24.9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後 지급여력비율은 218.3%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

- 다만,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회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

# 붙임1

## 보험회사별 지급여력비율 현황

[생명보험회사]

(단위 : %, %p)

회사명	'24.6월말(A)		'24.9월말(B)		증감 <sup>주)</sup> (B-A)
	경과조치 前	경과조치 後	경과조치 前	경과조치 後	
삼성	201.5	-	193.5	-	△8.0
한화	162.8	-	164.1	-	+1.3
교보	161.2	214.0	170.1	222.3	+8.3
농협	217.3	373.4	249.7	419.7	+46.3
흥국	156.5	209.3	161.3	213.9	+4.6
미래에셋	198.0	-	193.8	-	△4.2
신한라이프	235.5	-	231.0	-	△4.5
KDB	58.8	155.4	66.3	179.5	+24.1
DB	182.9	237.8	174.0	216.5	△21.3
KB라이프	299.2	-	272.3	-	△27.0
IBK연금	89.9	205.7	113.6	234.2	+28.5
IM라이프	135.1	192.6	131.0	178.0	△14.6
하나생명	111.7	162.8	161.4	226.6	+63.8
교보플래닛	187.1	239.1	152.6	186.4	△52.7
동양	166.2	-	160.3	-	△6.0
메트라이프	358.9	-	369.1	-	+10.1
ABL	104.7	144.5	113.1	152.5	+8.0
AIA	269.4	-	261.2	-	△8.2
푸본현대	10.3	180.8	17.3	200.9	+20.0
카디프	273.5	-	327.1	-	+53.7
라이나	342.9	-	368.8	-	+25.9
처브	168.3	228.6	156.5	200.0	△28.6
<b>전 체</b>	<b>191.7</b>	<b>212.6</b>	<b>191.2</b>	<b>211.7</b>	<b>△0.9</b>

주) 경과조치 미적용 회사는 경과조치 前, 경과조치 적용 회사는 경과조치 後 기준 증감

## [손해보험회사]

(단위 : %, %p)

회사명	'24.6월말(A)		'24.9월말(B)		증감 <sup>주)</sup> (B-A)
	경과조치 前	경과조치 後	경과조치 前	경과조치 後	
삼성	278.9	-	280.6	-	+1.7
DB	229.2	-	228.8	-	△0.4
현대해상	169.7	-	170.1	-	+0.5
KB	202.7	-	203.7	-	+1.1
메리츠	224.8	-	257.0	-	+32.2
한화	171.7	209.3	178.2	215.8	+6.5
롯데	139.1	173.1	128.7	159.8	△13.3
흥국	151.3	195.4	162.3	203.3	+8.0
농협	223.5	306.6	211.2	290.1	△16.5
MG	36.5	44.4	35.9	43.4	△1.0
하나손보	160.6	-	178.0	-	+17.5
캐롯손보	206.1	-	189.4	-	△16.7
카카오페이	1,171.9	-	667.4	-	△504.5
AXA	237.5	276.7	240.0	286.5	+9.8
AIG	252.8	-	236.7	-	△16.0
ACE	305.5	-	300.6	-	△4.9
미쓰이	392.9	-	429.7	-	+36.8
알리안츠	207.5	-	214.5	-	+7.0
신한EZ	343.5	-	169.9	-	△173.6
퍼스트	178.3	-	179.1	-	+0.8
코리안리	186.0	-	187.3	-	+1.3
스위스리	189.1	-	173.0	-	△16.0
SCOR	148.8	168.2	152.6	172.8	+4.7
RGA	200.0	-	198.3	-	△1.7
뮌헨리	278.8	-	307.5	-	+28.7
제네럴리	347.6	-	344.3	-	△3.3
하노버리	194.7	-	182.0	-	△12.7
동경해상	559.6	-	696.6	-	+137.0
퍼시픽리	322.4	-	306.7	-	△15.7
팩토리	433.3	-	359.7	-	△73.7
서울보증	445.4	-	444.8	-	△0.6
<b>전 체</b>	<b>215.6</b>	<b>223.9</b>	<b>218.7</b>	<b>227.1</b>	<b>+3.1</b>

주) 경과조치 미적용 회사는 경과조치 前, 경과조치 적용 회사는 경과조치 後 기준 증감

**가.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과조치****① 既발행 자본증권에 대한 경과조치(TFI)**

- 제도시행 전 기발행 신종자본증권·후순위채권은 K-ICS기준 상  
가용자본요건 未충족 시에도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

**② K-ICS 업무보고서 및 공시 기한 한시적 연장(~'24.9월말)**

- K-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1개월 연장  
(분기결산 : 3개월 이내, 연결산 : 4개월 이내)

**나.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경과조치 : 적용기간 최대 10년****③ 시가평가로 인한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(TAC)**

- 시가평가에 따른 자산감소 또는 부채증가 영향(가용자본 감소효과)을  
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

**④ 신규도입 보험위험액에 대한 경과조치(TIR)**

- 신규도입 위험(장수·해지·사업비·대재해위험) 측정으로 인한 보험위험액  
증가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

**⑤ 주식위험액 증가분에 대한 경과조치(TER)**

- 리스크 측정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주식 위험액 증가효과를 일시에  
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

**⑥ 금리위험액 증가분에 대한 경과조치(TIRR)**

- 리스크 측정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금리위험액 증가효과를 일시에  
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

※ 경과조치 관련 세부 내용은 23.3.14.(화) 조간 보도자료 '新지급여력제도(K-ICS) 경과  
조치 신고 접수결과, 19개 보험회사가 신청하였습니다' 참고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